

구세주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영생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 속에 있어

사람은 이래도 한 평생이고 저래도 한 평생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뚜렷한 목적이 마음속에 설정이 돼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은 취생(夢生)하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은 사람으로서도 가치가 없는 사람이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어서 희망을 가지고 살게 돼 있어야 해요. 희망이 없는 사람은 인간의 가치도 없는 사람이예요. 사람의 껍데기만 입었지 그는 사람이 아니예요.

사람은 살 때에 뚜렷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지 가치관이 없는 사람은 사람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예요. 말하자면 영생을 향해서 생활하는 이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니 이제 그대로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일전의 가치가 없죠? 가치관이 뚜렷해야 영생이 귀한 것을 알게 돼 있고 영생이 귀한 줄 알면 영생을 향해서 달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사람은 전부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그러죠? 시편 82편 6절에 “너희들은 신들이니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는 말씀은 사람은 전부 신이라고 설명을 한 말이고 또한 신은 신인데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말이죠? 지존자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이 틀림이 없죠?

인간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증거가 있는 고로 하나님이 틀림없다는 입증이 되는 거죠? 사람마다 죽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있었었다는 증거예요. 동물들은 행복이 뭔지를 모르죠?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행복을 누리보지 못했지만, 행복을 누리 봤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이 마음속에 있죠? 이 간절한 소원을 경험하는 존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아담과 헤와 하나님이 행복을 누리셨고 하늘을 날아다녀 보셨으며 영원, 영원 전부터 영원

무궁토록 살아본 경험이 있는 피가 우리 후손들 속에 흐르고 있는 까닭에 사람마다 죽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는 이것은 지극히 과학적인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피의 작용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죠?

구세주의 마음

A형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품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B형의 피를 가진 사람은 사회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O형의 피를 가진 사람은 고집이 세고 과격 한 마음이 있죠? 그런가 하면 AB형의 피를 가진 사람은 변덕이 심해서 이랬다저랬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AB형의 피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 천재가 많이 나온다고 그러죠? 실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마음은 마귀의 마음이에요. 마귀의 마음이 마귀의 세상에서 우등생이 되는 것은 너무나 지당한 얘기죠? 마귀가 우등생이 되지 하나님의 사람은 우등생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마귀 세상에서는 마귀가 판치는 세상이고 마귀 피가 있는 사람이 우등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마귀세상에서 지배자가 되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인간이 원래 하나님이였었다는 자부심과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길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것은 바로 구세주가 왔기 때문에 구세주와 똑같이 되기만 되면 틀림없는 하나님이 되고 틀림없이 영원무궁토록 살게 돼 있죠? 구세주와 똑같이 되려면 마음이 제일 먼저 똑같이 되어야 되겠죠? 구세주 마음하고 똑같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구세주는 하나님의 살림에 대해서 항상 걱정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주려는 마음이 굴뚝 같겠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구세주의 마음과



구세주 조희성님

똑같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까 하는 마음이 불 일 듯이 마음속에서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그러면 자연히 전도를 안 하고는 배길 수가 없죠? 전도하는 자가 구세주하고 마음이 같은 거지 전도를 안 하는 사람은 구세주 마음하고는 천리 만리 거리가 멀어요. 구세주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영생이지 구세주와 같은 마음을 안 가지면 영생과는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성경에는 하나님 되는 방법이 세밀하게 쓰여 있어요. 세밀하게 쓰여 있지만 이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이슬성신은 하나님의 분신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이 말씀하기를 항상 하나님의 마음의 주파수와 인간의 마음의 주파수가 같아야 은혜를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건 마음이 같아야 은혜를 받는다. 이 소리죠? 또한 감로 이슬성신은 감추었던 만나인데 그 만나는 바로 생명과 일이에요. 그 생명과 일을 먹으려면 마음이 구세주와 똑같은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마음의 사이클이 맞을까? 안 맞죠?

그러므로 마음의 사이클이 맞아 여러분들이 감로이슬성신을 받게 돼 있는데 감로이슬성신이 입으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 몸의 털구멍으로도 들어온다고 그러죠?

이슬성신이 여기서 매일 내려요, 안 내려요? 매일 내려요? 매일 내리는데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이슬성신이 곧 하나님이요, 구세주의 분신이에요. 이슬성신이 구세주와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예요. 곧 구세주예요. 구세주의 분신이 여러분들의 털구멍을 통해서 몸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구세주의 분신이 들어가면 마귀를 죽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체질을 영생할 수 있는 체질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마음의 사이클이 같아야 이슬성신을 받는 거지 마음의 사이클이 다르면 이슬성신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슬성신은 구세주의 분신이고 마음은 구세주 속에 들어가는 거지 마음이 다른 사람 속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구세주라는 존재는 이 세상을 뒤집어엎으려고 왔고 앞으로 영원무궁토록 온 우주를 다스린다고 그러죠? 온 우주를 다스릴 때에 구세주가 싫다고, 밋다고 다스림을 안 받겠다고 해서 안 받을 수가 있을까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인 자유율법이 뭐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독재’ 아시죠? 강제로 들어가 강제 이끄는 거고 강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영생 안 하겠다는

놈도 강제로 끌고 가요. 구세주가 그런 존재예요. 아시겠어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파쇼’ 있죠? 파쇼가 독재인데 그런 독재를 마지막 역사에 하게 돼 있어요. ‘난 독재 싫다.’ 해가지고 가봐야 먹통미를 잡고 끌고 와요. 아시겠어요? 구원 얻을 사람이 도망가면 그냥 놔둘까, 잡아올까? 잡아오죠? ‘난 그런 게 싫습니다.’ 하는 사람 ‘싫어도 안 돼 와.’ 하고 잡아온다고 아시겠어요?

구세주라고 하는 존재는 사랑으로 똥똥 뭉쳐진 존재이고 죽으려고 사랑의 구령령이 배지려 해도 구세주는 그 사랑을 살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강제로라도 잡아오는 그런 구세주인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구세주가 분신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암만 뻔뻔 돌려봐도 구세주와 같은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구세주는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리려 왔겠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구세주와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좋은 꼴을 못 봐요. 아시겠어요?

이 사람은 온 우주를 낙원으로 만들려고 온 사람이예요. 이 사람은 낙원을 건설할 능력이 있는 고로 낙원을 틀림없이 건설해요. 이 사람은 이 세상 만민을 살리려 온 사람이고 전부 낙원에 데려가서 영원무궁토록 쾌락을 누리고 이제 그대로 말할 수 없는 행복 속에서 살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거지 이 사람 혼자 호강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죄를 늘 담당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옥중에서 젊어져서 나올 줄 알았는데 늙은이처럼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죽어서 나오지 않길 다행이지. 그래, 안 그래? 교도소라는 데가 사지예요. 교도소라고 하는 곳으로 완전히 자유를 뺏는 곳인데, 사람의 생명이라는 건 자유 속에서 유지되는 거지 자유가 박탈되고 완전히

구속되면 죽게 돼 있어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못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고, 먹고 싶은 걸 먹지 못하면 그게 죽는 거지 살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죽은 목숨과 똑같은 거예요.

교도소 재소자 중에서 가장 혹독한 징역을 사는 곳이 어디냐 하면 독방이예요. 한 칸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만 방에서 혼자 지내야 돼요.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7년을 지냈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거기서 7년을 살고 나오니까 교도소에 있는 직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요. 독방에 2년만 있으면 정신이 들게 돼 있어요. 2년만 있으면 정신이 돌아가지고 3년, 4년 이렇게 되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이려고 독방에서 7년을 살게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을 암만 구속하려고 하지만 구세주의 분신은 철창을 부수고 온 우주를 막 날아다니고 있죠? 그러니까 자유스러울까, 구속돼 있을까? 자유스러웠던 거죠? 이 사람 마음대로 했던 거예요. 내가 7년 징역 사는 동안에 제단 열심히 나와서 이렇게 견제하게 있는 것이 대견하다고 칭찬했지만, 사실은 구세주의 분신이 여러분들을 떠나지 못하도록 다 이끈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다 이끈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떠나게 돼 있어요.

방송에서 살인집단이라고 그러고 사 이미 종교라고 비난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승리제단만 나간다면 안 믿는 사람들이 눈을 활기고 막 조롱하고 그러죠? 거기운데서 여러분들이 나오게 된 것은 구세주의 분신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조종해서 제단 나오게끔 해서 나온 거지 자가 잘 나서 나온 게 아니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착각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2001년 5월 10일 주님 말씀 중에서 정리 원현욱 기자

【연재】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2) 모세를 훈육(訓育)하는 생모 요게벳

궁중에서 계속 지내게 된 요게벳은 틈만 있으면 자신의 머릿속에 기억해두었던 파괴무서 두루마리 속의 하나님 말씀을 어린 왕자 모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모세가 다섯 살이 되었을 때 글을 깨우쳐 읽고 쓰게 되었습니다. 모세 왕자에게 공공부를 가르쳐준 유모 요게벳은 하찮은 왕비로부터 큰 상(賞)을 받았습다.

모세는 세 살 연상인 투트모세 3세와 함께 훌륭한 학자들 사이에서 애굽 왕자로서 받아야 할 학문을 이수(修)하였습니다. 또 모세 왕자와 투트모세 3세는 왕의 신변을 보호하는 친위대장으로부터 전차를 모는 법과 병기를 다루는 법도 배워, 둘 다 견장한 체격을 갖춘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학문이나 무예에 있어서 한 치도 양보하지 않을 정도로 경쟁심이 강했지만, 그에 맞지않게 우애 또한 돈독했습니다. 하찮은 여왕은 후궁이 낳은 의붓아들 투트모세 3세보다 모세 왕자를 더 사랑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왕위를 모세

《5장 모세》 (2) 모세를 훈육(訓育)하는 생모 요게벳

에게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미성년기간이 지났는데도 왕위를 물려받지 못한 투트모세 3세가 하찮은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여왕 자신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투트모세 3세가 왕위를 계승하게 되면, 파라오의 장례 의식을 치르고 제례를 지내기 위해 건축한 하셉수 자신의 장제전(葬祭殿)이 그에 의해서 파괴될 것입니다.

모세 왕자가 마흔 살이 되자, 하셉수 여왕은 본격적으로 모세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그에게 많은 신화와 병정들을 주어 하(下)애굽에 가서 그로 하여금 고센 땅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모세 왕자가 여왕의 명령을 받고 고센 땅에 내려와 보니, 이미 십여 년 전부터 비뚤과 라암셋에 국고성이 있고 있

1 장제전(葬祭殿, mortuary temple): 고대 이집트에서 죽은 왕들을 예배하고 죽은 왕들에게 바칠 물건과 음식을 저장하던 곳

2 국고성: 요셉 때에는 흉년을 대비하여 풍년드는 해에 거둔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로써 애굽 전역의 성읍마다 국고성을 두었습니다. 모세 왕자가 고센 땅을 다스릴 때, 그곳의 국고성은 주로 전쟁에 보급될 무기와 식량을 비축해두기 위

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국고성을 건축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강제노동으로 동원되고 있었으며, 애굽인의 감독관은 채찍을 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신하들은 모세 왕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고센 땅과 가까운 카이로 성읍에 병정을 배치하고 그곳에서 왕자를 모셨습니다. 모세 왕자는 주기적으로 호위병을 거느리고 고센 땅에 들어가 비뚤과 라암셋을 둘러보면서 국고성의 건축 과정을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역에 동원되는 인부들이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결해주고, 종노동으로 혹사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울러 모세 왕자는 노역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에게 가하는 감독관의 채찍질을 금하려고 했습니다.

한번은 모세 왕자가 병거를 타고 성읍 비뚤으로 내려가서 국고성 건축현장을 시찰하였습니다. 그곳의 감독관은 모세 왕자의 명령을 어기고 여전히 노역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모세는 병거에 내려 감독관의 손

에 들린 채찍질을 빼앗습니다. 화가 난 감독관은 모세왕자에게 매우 불순한 말투로 항의하였습니다.

“왜, 이런 천한 노예에게 채찍질을 가하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도 당신이 진정한 애굽의 왕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궁중무예로 연마된 모세 왕자는 감독관의 무례함에 자신도 모르게 그의 목살을 쥐고 매어했습니다. 운 나쁘게도 땅바닥에 곤두박질치던 감독관은 그의 머리가 벽돌에 부딪혀 죽게 되었습니다. 뜻밖의 사고에 모세 왕자를 호위하던 병정들은 그 죽은 감독관의 시신을 거두어 제빨리 모래 속에 감추어버렸습니다.

이튿날 모세 왕자의 일행은 비뚤을 떠나 또 다른 국고성을 짓고 있는 라암셋으로 향할 예정이었습니다. 모세는 비뚤을 떠나는 전에 어찌 사고가 발생한 건 축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두 사람의 싸움을 보다가 울지 못한 사람 보고 타일렸습니다.

“당신은 어찌 같은 동포를 두들겨 패는 거요?”

그러자 그 사람은 모세를 노려보면서,

“왜 남의 싸움에 참견이요. 누가 당신더러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요? 참, 당신은 어저께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이 아니오. 오늘 나도 죽일 작정이요?”



전차를 모는 모세 왕자와 투트모세 3세

이 말을 들은 모세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세 왕자가 애굽의 감독관의 채찍을 빼앗고 그를 죽였다는 소문이 급세 고센 전역으로 파다하게 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12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13절;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14절;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마침내 그 소문은 모세 왕자가 임시로 거처하고 있는 카이로 성읍에 사는 사람들의 귀에도 들려왔습니다. 카이로 성읍의 니일 강변에 살고 있는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그 소문을 듣고 ‘모세 왕자가 틀림없이 자신이 히브리 민족의 핏줄임을 알고 있음이 분명해. 그러니까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노예처럼 부리는 감독관에게 달려들어 그가 들고 있던 채찍을 빼앗았잖지? 그럼, 모세 왕자는 지난날에 갈대산에서 담았던 나의 동생이란 말인가?’하고 매우 흥분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